



350ppm

이산화탄소에서 살아남기

350ppm 규칙

하 나

적정 온도
유지하기

두 울

손빨래
하기

세 엇

고기
없는 날

네 엇

분리수거
&컵 사용

에어컨 적정온도 유지하기



손빨래 하기



고기 없는 날



분리수거 & 컵 사용하기



우리의 느낀 점

다 현

350ppm규칙을 일상 속에서 계속 상기하며 실천하려니까,
자발적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. 특히 손빨래를 할 때
'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' 싶기도 했지만, 매일 손빨래를 한 덕분에
내게 입지도 않은 옷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
욕심부리지 않고도 충분히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.
고기 없는 날은 좀 싫기도 했는데, 채소와 양념만으로도 맛있게 조리된 음식들을
먹었기 때문에 흡족했다^^

은 나

파주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지역센터에 와서도
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고, 팀원들과 함께 규칙을
만들어 실천해보았습니다. 편하지만 환경에 유해한 행동을 줄이고,
자발적으로 불편해지기를 선택하면서 힘들지라도 조금이라도
더 환경을 위하는 행동을 하려 노력했습니다. 시간이 더 지나서는
이런 일상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, 이를 통해서
라오스에 가서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우리의 느낀 점

재영

350ppm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. 350ppm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몸에 익히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느꼈다.

인호

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정말로 불편했다. 우리가 평소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얼마나 낭비를 심하게 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.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드는지 볼 수 없기에 답답하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기도 한다. 사실 손빨래가 세탁기보다 낭비가 심한 것 같은데?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약속한 것은 잘 지키고 있다!





감사합니다

강채영 김은나 이인호 조다영